

大韓建築士協會 創立 10 周年에 바란다

金 熙 春

大韓建築學會會長

大韓建築士協會 創立 10 周年을 맞는 오늘 感慨無量 하기 그지 없다.

지금으로부터 10 余年前 本人이 韓國建築家協會會長으로 있을 當時 바라마지 않던 建築士法이 通過되어 기뻐하던 일이 어제 같은데 벌써 10 周年이나 되었다. 그동안 士協會는 많은 發展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繼續 發展할 것으로 믿는다.

돌아보건데 建築士法이 通過된 後에 그 內容이 變質되어 物議를 빚었고, 따라서 우리 建築人들이 陣痛을 겪었다. 이러한 陣痛은 여러 가지 外部的인 影響도 있었지만 建築人 自体속에서 일어났던 것도 否認할 수 없다.

이제 그 過渡期를 지나 成年期에 들어선 우리 建築人들의 앞길에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바람직한 生活環境의 創造라는 課題는 쉽고도 어려운 여러 가지 問題를 많이 가지고 있다. 安易하게 척척 處理된 住宅群의 새 모습을 볼 때 果然 우리나라의 建築樣相이 이렇게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다시 한번 建築人들의 功지와 任務를 切感하게 되며, 外面하고 지나 갈 수 없는 생각이 든다.

이 時代야 말로 個人의 英雄主義的 活動에 依存하는 時代가 아니고 客觀妥當性을 바탕으로 한 協同의 時代라고 본다.

우리 建築人의 앞에 놓인 큰 課題는

1. 人口의 急增으로 因한 都市環境問題
2. 住宅에 關한 여러 가지 問題
3. 에너지 對策問題
4. 公害防止問題 等

이러한 問題 解決에는 우리들 個人의 힘으로는 到底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 들이다. 모든 建築人들이 自身이 맡은 分野에서 最善을 다하고 또한 廣範圍하게 協同하지 않고서는 解決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如何든 우리는 이러한 問題解決에 앞장을 서야 할 使命感이 있으며 그러므로 해서 우리 建築人들도 새 時代의 社會的 指導者로서 役割을 다할 수가 있으며, 建築士의 眞實한 뜻을 認定받게 될 것이다.

이제야 말로 大韓建築士協會 大韓建築學會、韓國建築家協會 는 共通된 責任意識下에 尤대를 더욱 強化하여 後世에 남겨줄 韓國 建築文化의 새로운 傳統을 세울 準備를 해야 할 時期라는 것을 強調하고 싶다.

끝으로 大韓建築士協會의 無窮한 發展을 바라 마지 않는다.

1975年 10月 23日